새 책

▶다키니 파워(미카엘라 하스 지음, 김영란·장윤정 옮김)='다키니 파워'에 등장하는 열두 여성은 일반적으로 성취를 이룬 수행자를 넘어 뛰어난 선지식으로 인식되는 이들이다. 저자는 이들이 헤쳐나간 삶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더듬어가며 '여성'이자 '법사'로 살아가는 과정을 인터뷰해 역경에 맞서고, 삶을 통찰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담앤북스. 2만3000원.

▶미중경쟁과 대만해협 위기(길윤형·장영희·정욱식 지음)=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남북 간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에만 초점을 맞춰왔을 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에는 지나치게 둔감했다.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경우, 남북한이 그 충돌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대만해협 위기를 다각도에서 다룬다. 갈마바람. 1만5000원.

▶밤에는 모든 피가 검다(다비드 디옵 지음, 목수정 옮김)=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어린 시절부터 꼭 붙어 다니던 주인공 나 알파와 친구 마뎀바는 '영혼의 형제' 같은 친구 사이다. 이들은 단지 돈을 벌어 출세하고자 프랑스 군대에 입대한다. 그러나 독일과의 전투에서 친구 마뎀바가 너무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자, 알파는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전쟁의 광기에 눈뜨게 된다는 슬픈 스토리다. 희담. 1만6000원.

▶튜브(손원평 지음)=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사업을 벌이고 주저앉는 일을 반복해온 남자가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을 놀라운 흡인력으로 그려낸 이번 작품은 사소한 변화를 통해 인생을 회복해나가는 인물의 눈물겨운 분투기를 담았다. 창비. 1만5000원.

▶골목의 조(송섬 지음)=제2회 박지리문학상 수상작.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면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 오직 고양이 두 마리와 두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장소. 그곳에 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온전히 받아주는 곳. 당신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나요? 사계절. 1만5000원.

▶가정 사정(조경란 지음)=작가가 6년 만에 선보이는 연작소설. 자주 어긋나고 맥연히 교차하는 가족의 대화를 세심하게 포착해내면서, 그저 희미해질 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온 가족 구성원들이 마침내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감각하는 모습을 그린다. 문학동네. 1만5000원.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 여름방학, 이 책 어때요?

제주 인문서부터 성장동화·동시집까지

● 평화의 섬 제주

"아름다운 경치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과 아픔, 슬픔을 알아야 제주도를 제대로 아는 거지요."

제주토박이 박재형 작가가 최근 엮어 낸 '평화의 섬 제주'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제주 인문서다. 아주 먼 옛날의 창세 신화를 간직한 섬 제주로부터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지나 탐라 왕국이 등장한 역사 시대부터 현재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우리가 잘 몰랐던 속 모습을 구석구석 다양하게 살펴보며 제주를 안내한다. 현북스. 1만5000원.

● 섣달그믐의 쫄깃한 밤

김원아 작가의 새로운 판타지 동화다. 책은 '우리의 옛이야기인 '도깨비와 범벅 장수'에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에서 출발했다. 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살면서 한 번쯤은 도깨비를 만나고 싶었는데 아직 못 만났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라도 마음껏 도깨비랑 놀고 싶어서 도깨비 이야기를 쓰게 됐다"고 했다. 책엔 먼 옛날 도깨비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범벅 장수의 후손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도깨비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인 주인공 온유와 개성 넘치는 도깨비 형제의 유쾌하고 특별한 우정을 보여준다. 그림 국민지. 주니어김영사. 1만2800원.

● 고민해결사무소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동아리 아이들과 '우직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화가 동화로 각색됐다. 프로젝트로 결성된 '고민해결사무소' 동아리는 초등학생에 의한, 초등학생을 위한, 초등학생의 고민 해결을 통해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공감과 작은 위로를 건넨다.

저자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여러분만의 고민해결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선생님,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고민해결사무소가 되어 줄 것"이라고 전한다. 글 오선경·그림 문인혜. 지학사아르볼. 1만3500원.

● 유도 소녀 강원미

평범한 열세 살 사춘기 소녀 강원미는 좋아하는 청명 오빠를 따라 유도를 시작하고, 유도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책은 첫사랑에 대한 설렘과 고민, 첫 도전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를 견뎌내고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을 그린 성장동화다. 저자는 "동화를 보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머릿속으로 그려 보면 좋겠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분명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글 윤주성·그림 국민지. 머스트비. 1만3000원.

● 무지갯빛 세상

'모두가 켠 작은 빛은 커다란 희망이 되어 우리들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거야.'(본문 중)

주로 토끼, 개구리, 고양이 등 동물들이 이야기하는 따뜻한 그림책을 냈던 작가가 이번엔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어느 소년의 이야기를 그렸다. 소년은 어두웠던 세상을 하나둘씩 색칠해 알록달록한 빛을 켠다. 출판사는 "이후에 소년이 혼자가 아니란 것을 알았듯이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이들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빛내고 있다"면서 "우리가 가진 빛깔을 하나둘씩 나누면 이 세상도, 우리의 마음도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토네 사토에 지음. 엄혜숙 옮김. 봄봄. 1만3000원.

● 콩알탄이 코시롱코시롱

제주출신 박진형 작가의 첫 동시집이다. 책을 내며 저자는 "어린 시절의 나와 어른이 된 나는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지금도 여전히 서툴고 헤매는 날이 많지만 동시가 있어 조금이나마 재미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신나고 감사하다고 말한다.

크게 4부로 구성된 동시집엔 50여 편의 시가 담겼다. 1부 '영등할망 부탁햄수다'와 2부 '바다를 돌돌 말았어'엔 제주도 사람들의 삶이 진솔하게 녹아있다. 3부 '엄마를 업고 가요', 4부 '나도 편식한다고!'에선 작가의 순박한 동심을 엿볼 수 있다. 책고래. 1만3000원.

오은지기자

이 책 '명화로 읽는 과학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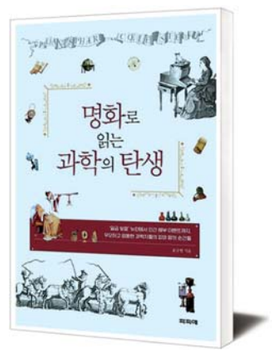
드라마틱한 과학의 순간 생생하게

"수많은 화가들이 그려낸 과학사의 눈부신 성취의 순간들을 통해 과학의 역사를 가볍게 둘러보는 책입니다." 저자의 간결한 책소개다. 그렇듯 '명화로 읽는 과학의 탄생'(윤금현 지음, 파피에 펴냄)은 드라마틱한 과학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묘사한 30여 장의 그림을 가려뽑아 과학과 기술, 의학의 발전사를 두루 둘러본다.

저자의 머리말 글을 조금 더 옮기면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밋밋한 초상화 대신에 그들이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과학자들도 뜨거운 피와 부드러운 살을 가진 사람이고 실험과 추론, 과학이라는 무기를 들고 당시를 지배하던 뿌리 깊은 선입견과 치열하게 싸운 '선구자'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책은 시대나 주제별로 따로 챕터를 나누지 않아 어떤 페이지든 관심있는 주제를 펼쳐서 가볍게 읽을 수 있다. '17세기 네덜란드, 1년에 딱 한 번 공개 해부를 하다' '작은 새는 왜 공기 펌프 안에 갇혔을까? '갈릴레이가 베니스 총독에게 달려간 이유는?' '인간의 몸이 하루에 1.8톤의 피를 만들어낸다고?' '파스칼, 데카르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다' '여왕마마!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옵니다' '출혈 부위에 불 대신 실을 쓰다' '이카루스의 꿈, 베르사유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번개 치는 날의 연날리기' '인간, 동물로 분류되다' '수학자의 거울, 로마 군선을 불태우다' 등 과학사에 빛나는 '그때 그 시절' 32가지의 새롭고 위대한 발명이나 발견의 순간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30여장 그림 속 과학사 명장면
과학·의학 발전사 다각도 살펴



저자는 그 순간들을 렘브란트, 페르메이르, 다비드 등 유명 화가들의 작품은 물론 앤티크 일러스트, 세밀한 판화, 신랄한 풍자로 가득한 캐리커쳐 등을 통해 다각도로 들여다본다.

출판사는 "인문학적 지식에 더해 '과학 이야기꾼'으로 손색이 없는 지은이의 유머러스한 입담은 읽는 재미까지 덤으로 선사한다"면서 "과학의 역사가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과학자들이 어떤 오류를 거쳐 진리에 도달했는지 알고나면 우리를 둘러싼 첨단 기술과 문명의 풍경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1만9800원.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